

I. 서론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 데이지, 톰, 머틀의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났다기보다는 경쟁심에 의해 촉발된 것처럼 보이며, 도구적인 수단으로서 이용당했다.

사랑은 획일적인 개념으로 정의할 수 없으며,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정신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랑, 육체적 요인을 중시하는 사랑 등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 다양한 사랑의 양상이 나타난다. 수업 시간에도 사랑에 관한 여러 가지 관점을 담은 책들을 접할 수 있었다. 특히 내 기억에 남았던 책은 네 남녀의 치정극 같은 사랑을 담은 『위대한 개츠비』와 인간 욕망의 관점에서 사랑에 관해 설명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이다. 『위대한 개츠비』의 경우, 내용 전반이 사랑이라는 요소를 통해 전개된다. 하지만, 나는 내용이 전개됨에 따라 그들의 감정을 정말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들었다. 내가 평소 사랑에 대해 '서로 교감하며, 행복을 나누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것과 달리 그들의 사랑은 어딘지 무겁고, 딱딱하며 심지어는 삭막하게까지 느껴졌기 때문이다. 책의 후반부로 갈수록 서로의 관계가 애정을 나누는 연인이라기보다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 성립된 비즈니스 관계로 변모한 것처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특히 개츠비의 경우, 처음에는 데이지라는 한 여자를 되찾기 위해 5년의 세월을 기다려왔다는 점에서 위대하고 낭만적으로 보였지만, 점차 톰과의 경쟁 관계에만 골몰하게 되며 데이지를 하나의 상징물로서 여긴다는 점이 그들이 사랑이 변질되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데이지를 향한 개츠비의 마음도 거짓으로 포장한 자신의 정체성처럼 겉치레에 불과해 보였다. 이 점들을 통해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이라는 단어로 개츠비, 톰, 데이지, 머틀의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었다. 아무리 사랑이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난다지만 『위대한 개츠비』에서 처럼 치열한 경쟁심으로 촉발된 대상에 대한 감정까지 포괄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나에게 등장인물들의 '경쟁심'과 '비교의 감정'이 사랑에 미치는 영향이 흥미롭게 다가왔다. 따라서 이에 초점을 두고 개츠비-톰, 데이지-머틀의 경쟁 구도를 통해 사랑의 복잡하고 경쟁적인 측면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침, 수업 시간에 접했던 지라르의 욕망 이론이 이러한 경쟁 구도를 분석하는 데 유용한 틀을 제공해 주었다. 특히 지라르가 제시한 '이중 간접화' 개념은 그들의 경쟁심에서 비롯된 사랑이 단순한 개인적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비교와 중개자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복잡한 현상이라는 것을 설명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따라서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은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톰 / 데이지-머틀의 복잡한 경쟁 구도를 이해하는 데 적합한 텍스트로 보였고, 이를 통해 사랑에서 나타나는 경쟁적 양상과 욕망에 대해 탐구하고자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 페이퍼는 사랑의 낭만적이지만은 않은 측면에 대해 조명하고,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 현대 사회에서 비교와 경쟁의 감정이 사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성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나는 『위대한 개츠비』 속 개츠비와 톰, 데이지와 머틀의 복잡한 경쟁 구도를 지라르의 '중개작용(간접화)' 이론 중 특히 '이중 간접화' 개념을 적용하여 분석해 보고, 그들의 감정을 진정한 사랑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II. 본론

먼저, 앞에서 언급했던 것과같이 위대한 개츠비 속 등장인물들의 사랑을 살펴보면, 그들의

감정은 진심이라기보다는 경쟁심과 소유욕에 의해 왜곡된 것처럼 보인다. 개츠비의 경우, 젊은 시절 데이지와 사랑을 하다가 전쟁으로 인해 그녀와 헤어지지만, 그녀를 잊지 못해 5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데이지를 만날 기회를 만들어 낸다. 데이지는 그사이 톰과 결혼했지만, 개츠비와 재회했을 때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통해 개츠비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처럼 그려진다. 톰 역시 개츠비와 데이지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데이지는 나와 결혼할 때도 나를 사랑했고, 지금도 나를 사랑하고 있고”(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민음사, 2003, 186)라고 말하며 데이지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표출한다. 머틀의 경우, 2장에서 톰과 밀회를 저지르며 그의 부인인 데이지의 이름을 불러 톰에게 폭행을 당했을 때조차 그로부터 관심과 애정을 얻으려고 애쓴다. 이 점을 고려한다면 개츠비, 톰, 데이지, 머틀은 모두 피상적으로는 사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닐까 싶었던 그들의 사랑은 불륜관계가 형성되고, 점차 경쟁 구도가 심화함에 따라 변질된다. 이러한 점에서 개츠비 속 등장인물들의 감정을 단순히 사랑으로 정의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책 속에서는 “강렬한 기운에 사로잡힌 모습”(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39)과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거 아시죠?”(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66) 같은 대사를 통해 그들의 감정이 ‘사랑’이라고 암시해 주고 있지만, 사실 그들이 보이는 행동은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쟁에 가까워 보이기 때문이다. 과연 이들의 감정을 순수하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정의 내릴 수 있을까? 만약 ‘사랑’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사랑이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는 과정에서 사랑을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 지라르의 주장을 떠올렸다.

개츠비-톰, 데이지-머틀 사이의 경쟁 관계를 통한 사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라르의 모방적 욕망에 대한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지라르에 따르면 모방적 욕망은 인간이 어떠한 대상을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중개자로 삼아 그 사람의 모방으로써 대상을 욕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방적 욕망으로 인해 사랑의 양상도 모방적으로 나타나며 주체와 중개자, 대상 사이에 삼각형 구조가 형성된다. ‘욕망의 삼각형’ 구조 안에서 주체는 중개자에 대해 “존경심과 원한이라는 두 가지 감정의 결합인 증오”(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52)를 느끼게 된다. 하지만 주체는 그 감정의 기저에 흠모와 존경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특별한 감정을 부정한다. 대신, 중개자에 대한 질투의 감정만을 지각한다. 이와 같은 모방적 욕망은 내면적 간접화(중개작용)와 외면적 간접화의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불평등이 감소하고 평등의 이념이 자리 잡은 현대에서는 사회적, 지적인 거리가 점차 좁혀짐에 따라 내면적 간접화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중개자와의 어떠한 경쟁 관계도 가능하지 않은”(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50) 외면적 간접화와 달리 내면적 간접화의 큰 특징 중 하나는 ‘경쟁심’이라고 할 수 있다. 주체가 느끼는 모방의 감정은 경쟁심과 비교에 의해 점점 격화되며, “주체는 소유할 수 없는 대상에게서 전보다도 더 마음을 돌릴 수가 없어진다.”(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55). 또한 지라르는 모방적 욕망의 전염성에 대해서도 언급한다. 모방적 욕망의 전염성은 주체와 중개자가 서로 상호 모방하는 이중 간접화(상호간접화)를 통해 드러난다. 최초의 욕망의 삼각형 내에서 발생하는 주체-중개자의 경쟁은 주체와 중개자의 위치가 역전된 또 다른 욕망의 삼각형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두 삼각형 구조로 인해 생겨난 ‘주체-중개자’와 ‘중개자-주체’ 모델 사이의 경쟁은 점점 더 빠르고 강하게 전개된다. 따라서 욕망의 삼각형 속 주체들은 경쟁을 진행함에 따라 대상 그 자체는 제쳐두고, 오히려 경쟁자와의 경쟁을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게 된다. 이는 격렬한 경쟁 속 주체들이 대상 그 자체를 진정으로 사랑한다기보다는 경쟁자와 겨루어 대상의 사랑을 쟁취하였을 때, 그 대상을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승리에 대한 증표가 되어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지라르의 이론을 적용하여 개츠비-톰, 데이지-머틀 사이의 경쟁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먼저, **개츠비와 톰** 사이의 경쟁 구도는 개츠비가 지닌 상층계급에 대한 모방의 욕망으로 인해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이는 개츠비의 출신에 대한 열등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개츠비는 상층계급을 세습해 온 톰과 달리 자랑할 만한 가문의 출신이 아니었고, 계속해서 자신의 가문에 대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다. 개츠비의 가문에 대한 열등감은 상류층의 호화로운 모습을 흉내 내는 성대한 파티를 여는 것과 개츠비가 자신의 정체성을 꾸며내어 중서부의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며, 옥스퍼드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으로 표출된다. 하지만 개츠비의 상층 계급에 대한 모방은 완벽하지 못했으며 허점이 있었다. 개츠비가 상층에 대한 모방을 위해 호화로운 저택에 구비해둔 책들은 다 진짜였지만 페이지를 칼로 자르지도 않았으며, 자신의 출신에 대해 말할 때면 횡설수설하여 닉에게 의심을 사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신흥 상류계층 개츠비와 기존 상류계층 사이의 좁혀지지 않는 간극을 보여준다. 따라서 개츠비에게 자신과 달리 완벽한 톰이 모방의 욕구를 자극하는 중개자로서 작용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집안이 부유해 “대학 다닐 때도 돈을 물 쓰듯 하는 바람에 빈축을 살 정도”(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6)였다는 닉의 서술에서 알 수 있듯이 톰은 개츠비와 달리 완벽한 상층계급이었으며, 개츠비가 도달할 수 없는 세계의 사람이라는 점에서 그에게 흠모와 존경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마땅했기 때문이다. 다만 개츠비는 지라르의 이론과 같이 자신의 특별한 감정을 인정하지 않고, 톰에 대한 질투의 감정만을 지각했기에 톰을 경쟁자로서 여기게 된 것이다. 따라서 톰에 대한 질투의 감정이 데이지를 향한 사랑을 촉발했다고 할 수 있다. 개츠비의 사랑은 경쟁심으로부터 비롯되었기에, 7장에서 개츠비는 데이지가 곤란해하고 있는 것은 안중에도 두지 않고 남편 톰에게 가서 “당신을 사랑한 적이 없었다.”(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85)고 말해주기를 바란다. 이는 자신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데이지의 입장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톰과 자신의 경쟁 관계에 골몰해 있는 개츠비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

개츠비로부터 시작된 경쟁의 감정은 “모방적 욕망은 전염성을 지니고 있다.”(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153~)는 지라르의 말처럼 톰에게로 전염된다. 톰은 데이지가 출산했을 때 곁에 없었으며, 작품 초반부에서는 식사를 하다가 뉴욕에 있는 정부(머틀)의 전화를 받으러 가는 등 아내에 대한 무심한 태도를 보인다. 하지만 자신의 아내인 데이지가 개츠비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이후부터는 갑자기 태도를 바꾼다. 개츠비의 등장 이후, 톰은 “데이지는 나와 결혼할 때도 나를 사랑했고, 나도 데이지를 사랑하고 있소.”(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86)라고 말하며 데이지를 향한 사랑의 감정을 표출한다. 이는 개츠비를 주체로 한 욕망의 삼각형 속 모방적 욕망이 톰에게 전염되어 톰을 주체로 하고, 개츠비를 중개자로 하는 또 다른 욕망의 삼각형을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톰은 데이지에게 별다른 사랑을 느끼지 못했기에 머틀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톰)에 의해 데이지를 더욱 갈구하게 된 개츠비의 등장은 그녀의 가치를 높여 주었고, 이에 따라 데이지를 향한 톰의 사랑의 감정이 촉발되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이중간접화에서 두 상대방 모두에게 대상은 변모된다”(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159)는 말처럼 개츠비뿐만 아니라 톰에게 있어 데이지의 존재는 ‘소유하고 싶은 대상’으로 변모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라르는 이 과정을 ‘주체-중개자’, ‘중개자-주체’ 모델의 이중간접화라고 설명한다. 이러한 이중간접화 속 욕망은 “두 경쟁자들 사이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왕래하며, 매번 그 강도가 증가”(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157)하기에 두 사람의 욕망이 상호작용을 하며 경쟁 심리는 격화된다. 이는 『위대한 개츠비』의 7장에서 개츠비와 톰 사이의 연쟁이 점차 치열해지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 장면에서 톰과 개츠비는 자신들이 사랑한다고 주장하는 데이지의 감정과 입장은 고려하지 않고, 서로를 공격하는 데에만 열중한다. 이 모습은 데이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소유욕과 자존심을 충족시켜 주는 존재로서 여기고 있는 톰과 개츠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개츠비와 톰은 데이지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기보다는 두 사람 사이의 경쟁에서 싸워 그녀를 차지함으로써 얻게 될 승리의 증표

때문에 데이지를 사랑했다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개츠비는 데이지가 결혼하기 이전에 그녀를 만나 사랑에 빠졌고 데이지를 계속해서 갈구해 왔으며, 데이지를 위해 죄를 뒤집어쓰기도 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사랑이 사실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닐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하지만 개츠비가 데이지를 만나기 이전부터 상류층으로 신분을 상승시키고 싶다는 욕구를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그의 사랑은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개츠비가 과거에 품고 있었던 야망은 6장에서 드러난다. '제임스 개츠'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그는 엄청난 백만장자였던 댄 코디를 만나게 된다. 댄 코디를 통해 상류층의 삶을 직접적으로 경험하게 된 그는 '제이 개츠비'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어내고, 상류층에 가까워지겠다는 야망이 강화되어 불법적인 밀주업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데 성공한다. 따라서 개츠비는 데이지를 만나기 이전부터 상류층으로의 신분 상승이라는 야망을 품고 있었고, 데이지와 처음 사랑에 빠지게 되었을 때도 그녀의 인품이 아니라 그녀가 상류층이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끌렸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개츠비가 데이지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돈으로 가득 차 있어요."(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71)라고 말했던 것과 8장에서 데이지와의 연애 시절을 회상하며 "지금까지 많은 남자들이 이미 데이지를 사랑하게 했다는 사실이 그녀의 가치를 더 크게 보이도록 했다."(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209)라고 언급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개츠비에게 있어 데이지는 처음부터 감정교류의 대상이라기보다는 상류층의 삶을 소유할 수 있게 해주는 상징으로서의 의미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개츠비는 데이지 그 자체를 사랑했다기보다는 데이지를 둘러싼 경제적, 외적 요소들에 매료된 것에 가깝다. 결국, 밀주업과 같은 불법적인 일을 하며 자신을 과대하게 평가하고 있던 개츠비는 자신이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고,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상류층의 상징물로서의 데이지를 잃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뒤집어쓰는 행동을 할 수 있었다고 본다. 이런 점들을 고려한다면 개츠비-톰의 경쟁 구도에서 데이지를 향한 사랑은 진심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경쟁심에 의해 촉발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라르의 이론을 적용해 **데이지-머틀**의 경쟁 관계를 설명해 보고자 한다. 작품 내에서 두 사람의 경쟁 구도는 개츠비-톰의 경쟁 관계에 비해 직접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앞서 설명한 개츠비와 톰의 경쟁 구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데이지와 머틀이 톰에 대해 느끼는 감정도 진심에서 우러난 것이라기보다는 경쟁심에 의해 촉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톰을 향한 데이지와 머틀의 사랑이 진심에서 우러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제 7장과 제 2장에서 드러난다. 제 7장에서는 데이지가 자신을 향해 사랑을 고백하는 톰을 향해 "구역질 나는군요."(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186)라는 말을 하는 것에서 톰을 그다지 사랑하지 않는 듯한 모습을 통해 나타난다. 제 2장에서는 머틀이 자신의 남편을 멸시하며 "그 사람을 신사로 착각했기 때문"(피츠제럴드, 위대한 개츠비, 54)에 결혼했고, 톰은 그와 달리 높은 신분과 부를 지닌 사람이기에 톰을 선택했다는 암시를 통해 드러난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톰이라는 존재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경쟁하게 되는 것일까? 지라르의 이중 간접화 개념을 적용하면 데이지와 머틀에게 서로의 존재가 모방의 욕구를 자극하는 매개체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여기서 두 사람의 경쟁 동기가 되는 욕망은 공통적으로 상류층의 지위와 부를 통한 인정이라는 점에서 개츠비-톰의 경쟁 구도에서 나타나는 서로의 욕망에 비해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두 사람의 경쟁은 비대면적으로 진행되지만, "경쟁심은 간접화의 위력을 증가시키기"(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55)때문에 상대의 존재로 인해 서로의 욕망은 더욱 유사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데이지와 머틀의 모방적 욕망은 각각 제 7장과 제 2장에서 드러난다. 먼저, 데이지는 이미 상류층에 속해 있지만, 머틀이 톰과 불륜을 저지르면서 톰의 유일한 부인으로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해 오자 톰과의 관계를 통해 상류층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는 7장에서 데이지가 머틀의 죽음에 대해 애도나 연민의 표현을 보이지 않으며, 개츠비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결국 톰을 선택해 톰의 유일한 부인으로 남게 된 모습을 통해 드러난다. 다음으로, 머틀은 상류층에 속하지 못한 하층계급으로서, 남편과 달리 부유한 톰을 통해 상류층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2장에서 자신의 남편이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아서 결혼식 예복을 빌렸다는 것을 알고 눈물을 흘린 일을 회상하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며, 그녀는 톰의 앞에서 데이지의 이름을 반복적으로 부르며 조롱하기도 한다. 이 장면은 데이지의 자리를 대체하고, 상류층의 부와 지위를 차지하고 싶어 하는 머틀의 모방적 욕망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사람의 경쟁 구도와 톰을 향한 사랑은 서로의 계층적 욕망과 상류층 인정 욕구로 인해 격화된다는 점에서 지라르의 이중 간접화 개념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이중 간접화를 통한 데이지-머틀의 경쟁 구도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비대면적 경쟁 양상이라고 할 수 있다. 서로 대면한 상태에서 경쟁 양상을 보인 개츠비-톰의 경쟁 구도와 달리, 데이지와 머틀의 경쟁 구도는 비대면 상태에서 간접적으로 나타난다. 작품 전반부에서 두 사람의 경쟁관계는 데이지가 톰에게 머틀로부터 전화가 왔을 때 심기를 불편해하는 모습이나, 머틀이 톰과 말다툼을 벌일 때 데이지의 이름을 연속적으로 부르며 그녀를 조롱하는 모습과 같이 나타난다. 하지만, 지라르의 이론에서 이중 간접화를 통한 경쟁이 진행됨에 따라 경쟁의 강도가 강렬해진다는 사실은 데이지와 머틀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게 된다. 작품의 후반부로 갈수록 두 사람의 경쟁도 격화되고, 거리를 유지하던 두 사람은 결국 머틀의 집 앞에서 대면하게 된다. 데이지와 머틀이 의도적으로 대면을 하게 된 것이 아니며, 머틀이 데이지의 차에 치여 죽게 되는 것도 머틀의 착각으로 인한 우발적 사건이었기 때문에 대면 상황에서도 직접적인 경쟁이 나타나지는 않는다. 하지만 톰과의 관계를 끝내 놓지 못하는 데이지의 모습과 톰을 쟁취하려다 머틀이 데이지에 차에 치여 죽게 되는 모습은 두 사람의 경쟁이 정점에 달했다가,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이 점은 “두 주체가 서로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들이 욕망이 강렬해질수록, 거꾸로 포개진 두 삼각형의 무익한 대립은 더욱 지독해지고 더욱 공허해져간다”(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157)는 지라르의 말을 떠올리게 한다. 이 과정에서 데이지와 머틀의 갈등이 서로에게 정신적/물리적으로 가까워진 상태에서 비극적 결말을 초래했다는 사실은 이중 간접화 과정 속 두 경쟁자 간의 정신적/물리적 거리가 경쟁 구도의 심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주기도 한다. 결국 데이지와 머틀도 톰의 부와 상류층의 지위를 욕망하는 서로의 모방으로써 촉발된 경쟁심에 의해 톰을 선택하게 된 것이며, 톰이라는 인격 자체를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III. 결론

지금까지 『위대한 개츠비』와 지라르의 이론을 통해 사랑과 경쟁이 얽힌 복잡한 감정을 분석해 보았다. 개츠비-톰의 경쟁 구도와 데이지-머틀의 경쟁 구도에서 그들의 사랑은 모두 자발적인 감정이 아니라 경쟁자와의 관계에서 대상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망으로 인해 촉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경쟁심에 의해 촉발된 사랑으로 인해 “이중간접화에서 두 상대방 모두에게 대상은 변모된다”(지라르, 낭만적 거짓과 소설적 진실, 159)는 지라르의 말처럼, 경쟁의 강도가 격렬해짐에 따라 톰-개츠비에게 있어서는 데이지가 주는 교류의 감정보다는 데이지를 쟁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류층의 상징이 사랑의 주목적이 되었다. 데이지-머틀에게 있어서는 톰에게 받는 애정보다는 톰의 애정을 쟁취함으로써 얻게 되는 상류층으로서의 부와 지위가 사랑의 주목적이 되었다. 결국, 이러한 경쟁심과 욕망이 초래한 결과는 비극이었다. 개츠비와 머틀의 죽음은 이들이 추구한 사랑이 순수하게 애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욕망에 의해 변질된 경쟁의 산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지라르는 사랑을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정의하고 설명했기에 비극적 결말로 끝나게 된 이들의

사랑도 그의 이론을 적용한다면 '사랑'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의 감정을 '사랑'이라고 정의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사랑을 하는 데 있어 중요한 것은 두 사람의 감정교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물론 두 사람이 감정을 교류하며 사랑하는데 있어서는 외모, 재력 등 물질적 요소와 외적 조건들이 작용한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에서 물질적 요소, 외적 조건에 대한 추구가 사랑하는 대상 자체의 인품과 상호 간의 감정교류에 대한 추구보다 선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물질적 요소와 외적 조건에 대한 추구가 더 커지게 되면, 결국 상대방을 인격체라기 보다는 하나의 상품 가치를 가진 상품으로써 여기게 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위대한 개츠비 속 인물들의 경우, 모방의 욕구로 격화된 경쟁심으로 인해 대상과의 감정교류와 대상의 내면에 대한 사랑보다 그 대상이 지닌 재력과 지위와 같은 물질적 요소의 추구가 선행했다. 따라서 나는 이들의 감정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정의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그들이 말하는 사랑의 이면에는 물질적 요소에 대한 욕망이 우위를 점하고 있었고, 자신의 파트너를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하나의 상품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습은 사랑이라는 단어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 양태가 항상 낭만적이고 아름답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현대 사회에서 그들과 다를 것 없는 연인들의 모습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을 본다면, 사랑에 대한 정의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시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싶은 의문이 들기도 한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비교와 경쟁이 사랑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 같다.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사랑이 욕망의 중개자로부터 자유로운지 성찰하며 사랑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로 기말 페이퍼를 마무리하고자 한다.